Analyses & Alternatives 2022 6(2): 079-115
DOI: 10.22931/aanda.2022.6.2.003

Affective Polarization, Policy versus Party: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Miongsei Kang**
Sejong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ccount for electoral choice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by focusing on social identity which forms the basis for core partisan groups. Two views compete to explain the origins of polarization, policy versus party. One emphasizes policy as more influential in choosing presidential candidates. This follows the tradition of retrospective voting theory in which voters' choice rely on government performance. Incumbent president whose performance proves well are rewarded to be reelected. Policy performance is based on measures around distinctive preferences for government spending. Republican Individuals prefer individual responsibility to government support, while Democratic counterparts support government support. Another perspective put an emphasis on the role partisanship which favors in-party members and disfavors partisan out-groups. Interparty animosity plays the key role in determining electoral behavior. This study relies on the Views of the Electorate Research (VOTER) Survey which provides a panel data of several waves from 2011 to 2020.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wo views highlights three findings. First, policy matters.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re the primary drives of political behavior. Electoral outcomes in 2020 turned out to be the results of policy considerations of voters. 53.7 percent of voters tilted toward individual responsibility voted for Trump, whereas 70.4 percent of those favorable views of government support than individual responsibility voted for Biden. Thus effects of policy correspond to a positive difference of 26.4 percent points. Second, partisanship effects are of similar extent in influencing electoral choice of candidates: Democrats are less likel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0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3A2A02092791).
** Senior Fellow, Sejong Institute. E-mail: miongsei@gmail.com.

to vote for Trump by 42.4 percent points, while Republicans are less likely to vote for Biden by 48.7 percent points. Third, animosity of Republicans toward Democrat core groups creates 26.5 percent points of favoring Trump over Biden. Democrat animosity toward Republican core groups creates a positive difference of 13.7 percent points of favoring Biden.

Keywords
Animosity, Polarization, Policy, Partisanship

Analyses & Alternatives 2022 6(2): 079-115
DOI: 10.22931/aanda.2022.6.2.003

정서적 양극화, 정책인가 아니면 정당인가: 2020 미 대선 사례*

강명세**
세종연구소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학은 정서적 양극화 즉 정당과 지지자 간의 대립적 현상을 놓고 논쟁 중이다. 이 논쟁은 정서적 양극화의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정당일체감 대 회고적 투표의 오랜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경쟁한다. 첫째는 정당일체감의 전통을 이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향적 태도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관점은 집단적 사고의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이었으나 사회심리학이 제시한 집단적 편향을 수용하여 이를 정서적 양극화의 기반으로 삼는다. 둘째는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이에 기초하며 이념과 정책선호의 차이가 정당 간 편향성으로 발전한다고 간주한다. 이념적 양극화는 양극화가 집단 간의 상징적 차이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이론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참여, 투표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 글은 이념과 정책선호 또는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집단적 편향 등이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양 주장을 비교할 것이다. 이 글은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후보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선호이다. 정책선호 면에서 개인책임을 선호하는 개인과 정부지원을 지지하는 개인이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53.7%와 70.4%로 26.4% 포인트 차이가 있다. 둘째, 정당일체감 효과는 팽팽하다.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42.4% 포인트 낮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을 선택할 확률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48.7% 포인트 낮다. 셋째, 정서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반대정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 효과를 보면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트럼프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26.5% 포인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3A2A02092791).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메일: miongsei@gmail.com.

트이다. 한편 공화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바이든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13.7% 포인트이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에는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 외 주관적 이념도 후보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보인다.

주제어
반감, 양극화, 정책, 파트너십

Ⅰ. 미국과 정치적 양극화

최근 미국사회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특히 2020년 대선에서 드러난 분열적 대립은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공화당 극렬 지지층이 회기 중이던 워싱톤 의회를 난입하는 미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난입사건은 미국의 양극화가 단순히 이념이나 정책적 대립을 초월하여 감정적 차원으로 비화했음을 의미한다.[1] 정서적 양극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개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과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정서적 양극화는 상대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뜻한다(Iyengar et al. 2012). 둘째, 지지정당의 차이는 정치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지층과 일체의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된다. 일터나 입학사정 등에서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 불이익을 주고 자녀혼사에 상대하지 않고 기피하려 한다 (Iyengar et al.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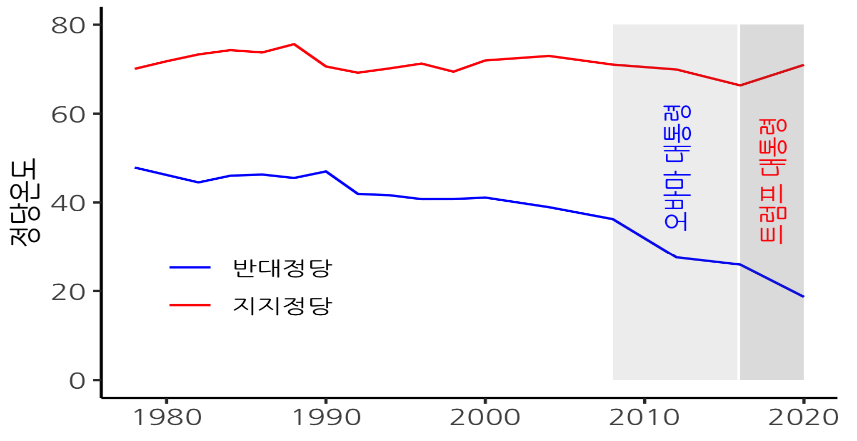
미국정치학은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과 규모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다.[2]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정치적 양극화는 두 가지 수준에서 일어난다. 첫째, 전통적으로 정당의 이념적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Abramowitz & Saunders 2008; Levendusky 2009). 선거에서 각종 정책에 대해 정당이 서로 극단적 대립적 입장으로 대치하고 지지

1) YouGov 난입당일 저녁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지지층 45%가 의회난입을 지지했다. 몇주 후 조사에서는 지지는 15%로 떨어졌다 (Kalmoe & Mason 2022, 133).

2) 한국 사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다음은 그 중의 일부이다: 정동준(2016, 2018), 길정아, 하상응(2019), 장승진(2021), 장승진, 서정규(2019), 장승진, 장한일(2020), 강명세(2020).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상원의 비준에서 갈수록 정당일체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Jeong 2020).

를 호소한다. 예를 들어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민주당은 큰 정부를 옹호한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다. 큰 정부는 복지확대를 위시하여 정부지출을 늘려 저소득층을 보호하려하며 무분별한 시장을 규제한다. 둘째, 최근 연구는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과 정책이 아니라 집단의 감정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정서적 양극화를 주장한다 (Iyengar, et al. 2012). 후자는 심리학의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반하여 정당을 정치적 정체성의 준거로 보고 개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 차별적으로 반응한다고 주장한다(Tajfel 1979; Huddy et al. 2015).

그림1. 정당온도 추세, 1978-2020



자료: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2021. ANES Time Series Cumulative Data File [dataset and documentation]. November 18,2021 version. www.electionstudies.org

|그림 1|은 정서적 양극화의 추세를 보여준다. 지지정당에 대한 감정은 꾸준히 지속되지만 반대정당에 대한 감정은 갈수록 싸늘해진다. |그림 1|의 추세에서 보듯 부정적 당파성은 1990년대부터 등장하는데 특

히 오마바 정부 이후에 현저해졌다. 2017년 PEW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층의 65%와 공화당지지층의 55%는 각각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친구는 소수 몇 명이거나 전혀 없다(PEW Oct 5, 2017). 지지정당에 대한 호감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비해 반대 정당을 싫어하는 감정은 증가한다(Abramowitz 2016; Bafumi & Shapiro 2009; Iyengar et al. 2012; Jacobson 2007; Mason 2018).

양극화는 정당정치에서 불가피하며 정도의 문제이다. 정당양극화는 엘리트 수준에서 출발한다. 의회의 양극화는 오래전부터 알려졌다(Bond & Fleisher 2001; Fiorina et al. 2005; Hetherington 2001; McCarty et al. 2006). 한편 대중수준에서의 정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Iyengar et al. 2019).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기반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하여 집권을 놓고 경쟁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양극화는 엘리트 수준에서 이념과 정책을 따른 노선의 양극화이다(Bond & Fleisher 2001; Hetherington 2001; McCarty et al. 2006).

그러나 최근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적 또는 정책선호에 기반한 양극화에서 벗어나 정서나 감정의 양극화가 심각해진다는데 우려가 제기된다. 양극화 현상은 주로 미국에서 논의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연구는 1972-2004년의 장기간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정치의 이념적 양극화는 엘리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대중적 수준에서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제시했다(Abramowitz & Saunders 2008). 오랫동안 정치학자들은 사회심리학의 집단갈등이론을 정치적 양극화에 적용해왔다 (Green et al. 2002; Tajfel 1979). 2012년 아헹가와 그의 동료연구자들이 감정적 또는 정서적 양극화 문제를 본격화함으로써 정치적 양극화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다(Iyengar et al. 2012).[3]

3) 정서적 양극화를 처음으로 제기한 이들의 연구는 Google Scholar 2022년 5월 6일 현재 1930회 인용되었다. 최근 저자들은 원고를 수정하는 한 시간 사이에 두 편의 워킹페이퍼가 등장할 정도로 연구가 왕성하다고 썼다

정서적 양극화는 “공화당이나 민주당과 일체감을 갖는 사람들이 반대 정당에 일체감을 갖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정치적 일체감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Iyengar and Westwood 2015, 691). 대중이 정당을 경험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정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매개로 한다 (Green et al. 2002; Ahler and Sood 2018). 뉴딜 이후 공화당은 부자, 민주당은 노동계급을 연상시킨다. 민주당 지지층에는 흑인집단이 포함되었고 최근에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가 추가되었다. 1960년대 이후 흑인이 민주당의 전형적 지지층이 된다. 백인은 민권운동 이후 상대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되었다. 공화당 지지집단에는 청년층보다 노년층이 많다(Mason 2015; Iyengar & Krupenkin 2018). 지리적으로 남부는 민주당 철옹성에서 공화당 기반으로 바뀌었고 티파티의 공화당 연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다. 1980년대 종교의 정치활동이 시작되면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민주당을, 개신교도는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문화적 가치에서도 서로 반대로 움직였다. 민주당은 동성애자 등 소수권 보호에 적극적인 반면 공화당은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로 자리했다. 젠더에서도 민주당은 여성, 공화당은 남성이 더 지지한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재편되어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미국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지방거주자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Rodden 2019). 이처럼 양당의 지지층은 정치적 정향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재배열되었다 (Mason 2018; Levendusky 2009).

(Krupnikov & Ryan 2022, 24)

II. 정서적 양극화의 기반에 대한 두 가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이론이 대립한다. 이념적 및 정책적 기반을 주장하는 이론과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정서적 양극화의 이념적 기반을 주장하는 쪽은 이념과 당파성의 배열(partisan sorting)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가정한다. 공화당 지지층은 더욱 더 보수화되고 민주당 지지자는 보다 진보적(liberal)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 진영을 더 편애하는 대신 다른 진영을 적대시하는 것이다(Bougher 2017; Webster & Abrmowitz 2017). 개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표방하거나 제시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개인이 정부지출의 방향, 낙태, 저소득지원, 인종정책, 여성정책 등등에서 정책선호가 분명하면 그러한 선호와 가장 근접한 정당을 지지하고 가깝게 느낀다.

집단 간 대립에 방점을 두면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극단화가 아니라도 발생한다. 이념이나 정책의 선호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혐오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강력하면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책과 정당 중 어느 것이 정서적 양극화를 만드는 핵심 원인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4] 관찰조사의 자료에서 양자를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념적 및 정책선호의 차이와 반대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 정당지지자는 자신의 정당이 옹호하는 정책 들을 지지하며 다른 정책을 지향하는 반대정당과 그 지지층에 대해 적대적이다 (Bougher 2017; Webster & Abramowitz 2017). 이처럼 정책과 정서적 양극화는 공존한다. 이에 대해 정서적 양극화를 주장하는 쪽은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대립과 구분되며 이념

4)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적 조사에서도 양쪽의 주장은 팽팽하 맞선다. 논쟁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Lelkes(2012) 참고.

적 극단성이 양극화의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Iyengar et al. 2019, 130). 정체성을 중시하는 연구는 정당일체감이 강력한 대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주문 내용의 이념적 좌우를 불문하고 추종한다는 점을 보고한다(Barber & Pope 2019).

이러한 정책 대 정당의 논쟁은 민주주의 경쟁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간 선명한 대립은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 양극화가 정치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비정치적 영역으로 확산되어 자신과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차별적 편익을 제공한다면 민주적 결정이 갖는 공정성을 위협한다 (Iyengar et al. 2012; McConnell et al. 2018).

최근 당파성 연구는 "당파성은 더 이상 정치적 선호가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주장한다(Bankert 2020, 관련 분야의 문헌평가는 Iyengar et al. 2019). 사회적 정체성 관점은 당파성이 젠더나 인종처럼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정서적 양극화를 주도한다는 점에 집중한다(West & Iyengar 2020). 이들에 의하면 정책은 별도의 개념이며 정당일체감과 결합될 때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 이념이나 정책은 정서적 양극화에 대해 독자적으로는 관계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다(Iyengar et al. 2012; Mason 2018; Mason and Wronski 2018).

1. 정체성 기반 가설

정당일체감 이론은 오래 전부터 정치행위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정당일체감을 제시했다 (Campbell et al. 1960). 미시간 학파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미시간학파는 정당일체감은 인종, 종교 및 이념 등 다른 사회적 정체성과 독립적으로 개인의 정치행위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정체성 간의 상호관계나 위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었다.

최근 집단적 성격에 주목하는 새로운 당파성 이론은 정당일체감은 과거처럼 다른 사회적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과 상호 중첩하여 개인의 정치행위를 결정하는 중심적 실체라고 가정한다 (Mason 2015; Mason 2018). 정당과 기타 사회적 정체성 간의 연대는 더욱 강력해지면서 정치적 양극화로 발전했다고 본다 (Iyengar et al. 2012; Iyengar & Westwood 2015; Mason & Wronski 2018).

감정적 양극화 가설은 감정적 요인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 뿐 아니라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판단에도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정당지지는 스포츠에서의 팬덤 현상과 동일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개인은 '우리' 정당을 편애하는 반면 '상대' 정당에 적대적이다. 이들은 정당일체감의 관점에서의 이념적 배열(sorting)을 주장한다. 특정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가진 개인은 정당엘리트나 활동가가 주장하는 이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체감이 강한 개인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에 자신의 선호를 근접시킨다. 이에 의하면 일체감과 정책의 관계는 일체감이 먼저이고 정책선호는 부차적으로 따라온다.

정체성-중심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정당의 지지기반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메이슨 외의 연구(2018)는 사회적 양극화는 다양한 정체성이 하나의 정치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결합되면서 일어난 결과라고 해석한다. 종교와 인종 뿐아니라 이념마저도 나름의 정체성이다. "정치적 배열(party sorting)"로 인해 정당 내적으로 동질성이 늘어나고 동시에 정당 간에는 이질성이 높아졌다. 재배열은 종교와 인종으로 번졌다. 1960년 민권운동 이후 실질적 흑인해방이 시작되면서 남부 백인은 남북전쟁이후 줄 곧 지지해왔던 민주당을 떠나고 공화당을 지지하게 된다. 한편 흑인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핵심지지층이 되었다 (Abramowitz 2018; Mason 2018). 1980년에는 일부 개신교 종파가 공화당 지지를 선언하면서 종교적 정체성이 정치적 정체성과 중첩하게 된

다. 이후 백인 개신교도는 공화당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백인은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다.

정당은 다양한 지지층의 연합이다. 현재 민주당은 도시거주자와 전문직, 그리고 여성이 주로 지지하는 정당이다. 공화당은 노년의 백인, 복음파 교인, 그리고 지방거주자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 (Rodden 2019). 이념, 인종과 종교는 정당지지층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1930년대 뉴딜 이후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진보적 정책을 공화당은 보수적 정향을 지향해왔다(Stimson 2004; Abramowitz 2018; Schickler 2018). 1960년대 흑인은 민주당의 가장 충성스런 지지층이 되었고 민주당은 소수계를 대표하는 정책을 표방해왔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히스패닉과 아시아계의 민주당 지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과 성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지지한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한다. 한편 공화당은 백인 주류 그중에서도 고졸이하 백인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왔다 (Sides et al 2018; Achen & Bartels 2016; McCarty 2019). 종교적으로 무종교나 교회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지지한다. 반대로 교회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은 대체로 공화당 지지층이다(Margolis 2018).

정서적 양극화 가설을 검증하려면 정당일체감과 핵심지지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야 한다. 핵심지지기반에 대한 태도는 정당일체감에서 비롯하나 직접적으로 적대적 당파성을 뜻하는 점에서 경험적으로 더 분명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당의 핵심적 지지층에 대한 태도가 정치선택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것이다.

2. 정책가설

1980년대 합리적 선택 이론은 개인의 후보결정은 개인의 편익계산에 근거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수정주의를 대변하는 회고적 투표 가설

은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응징하고 정부성과에 대해서는 재신임으로 보상한다고 주장했다(Fiorina 1981). 이들은 정당일체감은 손익계산의 결과이지 추동자(unmoved mover)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선거선택은 민주주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기제이다. 개인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정부역할에 대해 달리 생각한다. 일부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 한편 개인의 창의성과 주도적 역할을 믿는 사람은 정부지출에 반대한다. 양자의 차이는 문화전통이나 가치의 영역에서도 두드러진다. 낙태, 양성평등, 동성애자, 및 이민자 등과 관련된 소수자권리의 보장을 지지하는 개인은 이런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반면 생명존중, 권위와 전통적 가치 등을 중요시하는 개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를 표방하는 후보에게 끌린다. 양측은 이념적으로 대립한다.

이념적 양극화 가설은 양극화는 이념적 차이에 있다고 본다(Abramowitz & Saunders 2008; Fiorina 2016). 공화당 지지자는 더욱 보수화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더 진보적으로 된다는 것이다(Levendusky 2009; Mason 2015; Hetherington et al. 2016). 이러한 배열(sorting)은 당파성이 확고한 개인에서 나타난다.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적 극단화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사회복지이념이 다르면 반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적대적으로 되어 정서적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본다(Webster & Abramowitz 2017). 이념적 기반 가설은 이념과 함께 이념강도의 중요성을 추가하고 보완한다(Rogowski & Sutherland 2016; Webster & Abramowitz 2017).

이념적 기반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정책과 정당일체감보다 이념적 변수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제시한다(Lelkes 2021). 이에 따르면 개인이 후보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온도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 후보자의 정책적 선호에 따라 더 영향을 받는다. 나아가 정책선호의 강도가 중요한 응답자는 후보자의 정책선호강도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응답자는 단순히 같은 정당 후보에 비해 같은 정당의 후보이면서 극단적

정책선호를 가지면 감정온도는 3.5배 상승한다. 반대로 반대 진영의 후보에 비해 그가 극단적 정책선호를 가지면 그에 대한 감정온도는 약 2.5배 낮아진다. 이러한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이념적 기반을 지지한다 (Rogowski & Sutherland 2016; Fiorina 2017; Webster and Abramowitz 2017). 그러나 두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소속정당에 대한 정보가 후보자의 정책선호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면 후보에 대한 온도는 더 분명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가설의 이념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과 정부 대 시장 혹은 개인책임에 대한 태도가 후보 호감도와 후보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로 대비되는 연방정부의 성격은 개인의 사회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후보선택에 대한 정책적 영향을 측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Ⅲ. 자료와 변수

본 연구는 VOTER 조사에 의존한다[5]. VOTER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고 2011년 첫 조사 이후 2016, 2017, 2018, 2019, 및 2020년 조사까지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6] 정서적 양극화는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통해 표출된다(Iyengar et al. 2012). 많은 연구는 민주당 온도와 공화당 온도의 차이를 통해 정서적 양극화의 정도를 측정한다. 특정 정당에 품는 정서적 태도는 개인의 정치참여 전반에 영향을 준다. 정당온

5) Democracy Fund Voter Study Group. VIEWS OF THE ELECTORATE RESEARCH SURVEY, December 2021. Washington, D.C. https://www.voterstudygroup.org/. VOTER를 활용한 연구는 Sides et al.(2018), Mason et al.(2021).
6) 2011년 최초 설문에는 45,000명이 참여했고 2020년 11월 조사에는 4,943명이 설문을 마쳤다.

도가 높을수록 지지후보를 돕기 위해 캠페인에 자원봉사하거나, 차량에 스티커 부착, 주위에 권유하기, 정치자금 후원 등등의 활동에 적극적이다 (Fiorina 2005). 응답자가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대해 갖는 느낌을 온도로 표시하여 냉랭하면 0, 가장 훈훈한 감정은 100도로 표현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양극화에 기여하는 요인의 발견하고 그 중요성을 평가하는데 집중했다. 양극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형성해왔다. 이들은 정서적 양극화가 정치태도, 성향 및 후보선택에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대한 직접적 조사는 많지 않다 (Iyengar & Krupenkin 2018). 본 연구는 반대로 정서적 양극화가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한다. 2011년 응답자의 정당일체감이나 이념정향, 정책선호도가 2020년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선호와 주관적 이념, 정당일체감 및 부정적 당파성 변수를 각각 정책가설과 정서적 가설을 대변하는 핵심적 변수역할로 설정한다. 정책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VOTER조사에 포함된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세 가지 설문을 기반으로 이념적 기반을 측정하고자 한다. 부유세, 의료보장제도, 그리고 사회적 소수보호정책 등에 대한 찬반을 평균하여 정책선호 변수로 만들고 [0,1] 구간으로 재코딩했다.

한편 부정적 당파성 요인은 상대정당의 핵심지지기반에 대한 태도로 표출된다. 정서적 양극화가 상대 지지층을 싫어하는 거리두기를 의미한다면 이는 상대정당을 상징하는 핵심지지층에 대한 호불호를 통해 표출될 것이다.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감정은 민주당이 표방하는 진보주의(liberalism)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진보주의는 인종적 소수와 성적 소수에 대해 보다 관용적 입장을 취하는(sorted) 점에서 이는 흑인, 무슬림, 및 동성애자에 대한 감정온도를 결합하여 평균한 값으로 포착될 수 있다.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이나 정체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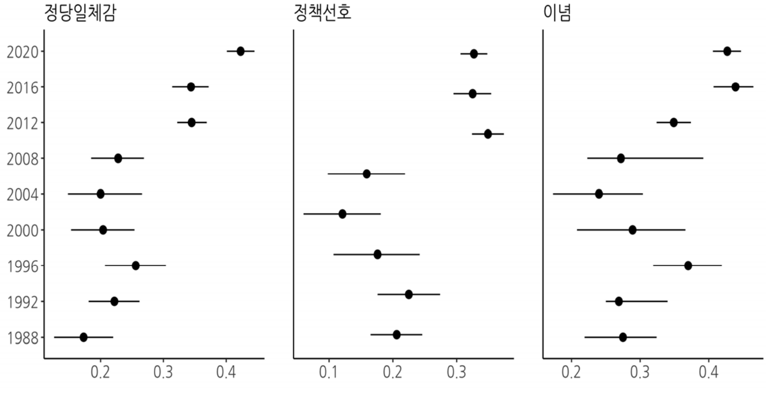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감정이 이념, 정책선호 및 정당일체감 등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나타난다. 미국선거연구(ANES)는 1988년부터 흑인과 동성애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에 대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설문하여왔다. 민주당지지집단에 대한 혐오는 감정온도를 역순한 값이다. 공화당지지집단에 대한 태도는 주로 백인과 기독교 집단이며 이 두 집단에 대한 감정온도를 평균한 값이다. 1988년 이후 민주당의 상징적 소수계에 태도가 이념, 정책선호 및 정당일체감과의 관계는 |그림 2|에 있다.

1. 상관관계: 감정온도, 정책, 이념 및 정당일체감

본격 논의에 앞서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태도가 정당일체감, 정책선호 및 주관적 이념과 갖는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선거연구(ANES) 누적자료에 있는 7점 구간의 정당일체감, 정책선호 및 주관적 이념 요인이 민주당지지집단에 대한 감정온도의 상관관계를 1988년부터 2020년까지 추적한 것이 |그림 2|이다. 민주당에 대한 감정온도는 민주당의 지지집단을 상징하는 흑인과 동성애자에 대한 감정온도의 평균이다. |그림 2|의 왼쪽은 정당일체감과 민주당지지집단에 대한 감정온도의 상관관계이다. 상관관계는 201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것은 1988년 0.2에도 미만하였으나 2012년 0.344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0.43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가운데 그림은 정책선호와 민주당지지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이다 정책선호는 연방정부의 역할과 관련, 의료, 일자리 및 소득보장, 정부지출, 방위비지출, 그리고 흑인 등 소수계지원 등 1992년-2020년 자료를 포함한다. 정책선호는 개인책임(0)으로부터 정부의 지원(1)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정부역할을 선호한다. 1992년 양자의 상관관계 지수는 0.206에서 2020년 0.327로 증가했다. 셋째는 주관적 이념과 민주당지지집단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이다. 여기서도 2012년부터 증가하여 특히 2016에는

대폭 상승했다. 이처럼 세 가지 지표 모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던 2012년부터 과거와는 다른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림 2. 정당일체감, 정책 및 이념 등과 민주당 지지집단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자료: ANES cumulative file 2021. 민주당지지집단 온도는 흑인과 동성애자에 대한 감정온도를 100으로 나눈 값, 정책선호는 연방정부의 역할 관련 의료보편성, 일자리 및 소득보장, 방위비지출(역순) 및 소수계지원 등의 평균. 이념은 주관적 이념. 세 변수 모두 0에서 1 사이로 재코딩.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자료(VOTER)를 바탕으로 관심변수 간의 관계를 보자. |그림 3|은 2020년 대선에서의 바이든 선택, 정당일체감, 정책선호, 주관적 이념, 민주당지지집단에 대한 혐오, 그리고 공화당지지집단에 대한 혐오 등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정당일체감은 강력한 민주당(1)부터 강력한 공화당(7)의 구간으로 구성되며 주관적 이념평가 역시 극좌(1)에서 극우(7)의 구간을 갖는다. 정책선호는 부유세, 보편의료 및 소수자지원 등 설문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0과 1사이로 코딩한 값이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선택과 관련 정책선호는 0.73, 정당일체감은 -0.70, 이념은 -0.64의 높은 상관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부정적 당파성을 의미하는 공화당지지집단에 대한 적대감은 0.25에 불과하다. 이처럼 단순한 상관관계에 의하면 전통적인 정당

일체감과 정책선호, 그리고 주관적 이념이 바이든을 선택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부정적 당파성, 정당일체감, 정책선호 및 이념

	정당일체감	이념	정책선호	민주당혐오	공화당혐오
민주당혐오					0.21
정책선호				-0.36	0.27
이념			-0.68	0.35	-0.34
정당일체감		0.7	-0.73	0.33	-0.28
바이든	-0.7	-0.64	0.73	-0.38	0.25

자료: VOTER, 부정적 당파성은 민주당혐오는 흑인과 동성애자 등에 대한 감정온도, 공화당혐오는 백인과 기독교도에 대한 감정온도, 정책선호는 부유세, 보편의료, 소수지원등의 평균. 7점 구간의 이념과 정당일체감 등을 포함하여 모두 0-1사이로 재코딩

정당이 다양한 사회인구적 집단을 포괄한다면 양극화는 소속집단이 서로 배타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당은 정책을 기반으로 지지집단의 이해를 대표하고 보호하려 한다. 특히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다양한 집단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표방해왔으며 이는 공화당 정책과 대립한다.

민주당 지지층은 흑인, 이민자,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해 배려한다면 공화당 지지층은 주류 백인과 기독교도를 대표하여 이들의 물적 및 도덕적 가치를 옹호한다. 각당 지지층은 서로 상대당 지지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반대한다. 민주당 지지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던 이민자나 무슬림 등에 대한 배제와 억압을 반대했다. 양당은 복지수혜자에 대한 태도에서도 다르다. 복지수혜자는 주로 흑인 등 소수를 포함한

다. 그렇다면 다양한 이해와 정책이 양당의 후보지지에 어떻게 대조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적 지향이 반대되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 당파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책에 연계된 정서적 양극화가 후보선택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포착하기 위해 정당일체감과 기본적 사회인구적 속성을 통제한 후 이념, 흑인, 이민, 무슬림, 복지수급자, 및 개신교에 대한 감정온도 등이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에 미친 영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1. 후보선택

|표 1|은 후보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대상으로 한 로짓분석 결과이다. 둘째 및 셋째 열의 종속변수는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지지를 뜻하며 관심변수는 정당일체감, 정책선호 및 부정적 당파성이다. 정책선호와 정당일체감이 각각 바이든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준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표준화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로짓분석은 방향과 크기는 짐작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예상확률이 유용하다. 로짓분석은 최소제곱분석과 달리 계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계수 자체보다 지지확률로 전환하여 이용하면 편리하다 (Gelman & Hill 2008). 후보선택에 대한 정책우위와 정당우위 가설을 검증하는 가장 직접적 방법은 양 이론을 대표하는 변수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상대정당 지지자에 대한 적개심은 부정적 당파성의 정서적 양극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대리변수이다. 한편 정책우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선 정부와 시장에 대한 정책선호 즉 개인책임 대 정부지원에 대한 태도가 후보선택에 갖는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정당일체감이나 주관적 이념은 당파성과 이념을 뜻하는 전통적 요인이다.

첫째 정책선호가 후보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와 바이든지지 모형 각각에서 정책선호 변수의 계수는 각각 -2.65과 1.65이다.[7] 이를 후보지지확률로 계산할 경우 정책이 표준편차 두 단위 이동

하면 바이든 지지가능성은 70.4% 포인트 차이가 있다. 이 70.4%는 0에서 1사이에 위치한 정책이 평균값(0.45)에서 개인책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표준편차(0.41) 하나 작은 위치(0.04)에서 정부지원을 찬성하는 방향(0.96)으로 이동할 경우에 발생하는 차이이다. 정책선호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동할 때 응답자의 트럼프 지지확률 차이는 53.7% 포인트 차이가 발생한다. 정책선호의 차이는 트럼프 후보에서보다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에 보다 큰 영향을 준다. 정책적 차이가 바이든 후보지지에 주는 효과의 차이는 70.4% 포인트, 트럼프에 주는 효과는 53.7%로서 양자의 차이는 26.7% 포인트이다.

표 1: 정책, 부정적 당파성, 정당일체감 및 후보지지. 로짓분석

	트럼프	바이든
상수	0.29 * (0.14)	1.25 *** (0.13)
나이/10	0.19 (0.15)	0.43 ** (0.15)
여성(2011)	0.06 (0.14)	-0.01 (0.14)
최종학력	-0.41 ** (0.15)	0.62 *** (0.15)
정책선호	-2.65 *** (0.32)	1.65 *** (0.29)
민주당적대감(2011)	1.11 *** (0.17)	-1.30 *** (0.18)
공화당적대감(2011)	-0.86 *** (0.17)	0.58 ***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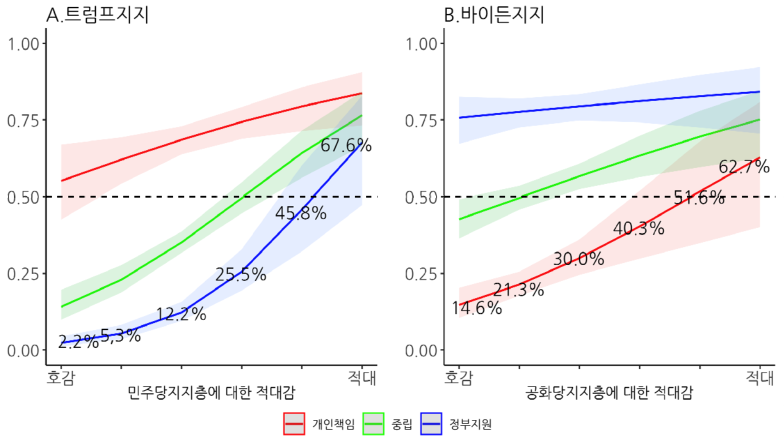
7) <표 1>에서 보듯 상호작용의 효과를 포함할 경우 트럼프 지지의 정책선호 계수의 합은 -2.53(=-2.65+0.45-0.13)이며 바이든 지지와 관련 정책선호 계수의 합은 3.98(=1.65+1.01+1.32)이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 모형에서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바이든 지지에서 무당층:정책선호 상호작용은 5%, 공화당:정책선호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념(2011)	1.31 *** (0.23)	-1.31 *** (0.23)
민주당:정책선호	0.45 (0.46)	
무당층:정책선호	-0.32 (0.51)	
민주당(2011)	-1.89 *** (0.20)	
무당층(2011)	-0.69 ** (0.22)	
무당층(2011)		-1.58 *** (0.20)
공화당(2011)		-2.04 *** (0.19)
무당층:정책선호		1.01 * (0.48)
공화당:정책선호		1.32 ** (0.45)
N	2350	2350
AIC	1386.59	1372.08
BIC	1455.74	1441.23
Pseudo R2	0.74	0.74

*** p < 0.001; ** p < 0.01; * p < 0.05.가변수 (여성과 정당일체감)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표준편차 2 단위의 표준화계수. 로짓분석이며 종속변수는 2020년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이다. 관심변수 중 정책은 정부역할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3개 설문의 응답을 평균한 것이다. 0-1 구간으로 재코딩되었다. 민주당지지층혐오는 흑인, 무슬림, 동성애자 등에 대한 감정온도의 평균이며 0-1 구간으로 재코딩되었다. 공화당지지층혐오는 백인과 기독교도에 대한 감정온도의 평균이며 0-1 구간으로 재코딩되었다. 나이, 최종학력, 소득 등이다. 자료: VOTER 2021.

한편 정책선호는 후보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 후보지지의 경우, 정책선호는 독자적으로 뿐 아니라 정당일체감을 매개로 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후보지지는 정책적 요인과 정당일체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바이든 후보의 선택은 상호작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즉 트럼프를 지지하는 요인은 정책적 요인보다 정당일체감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상호작용 효과는 수직축은 후보 지지를 뜻하는 |그림 4|에서 잘 드러난다. 4A와 4B는 각각 트럼프 지지와 바이든 지지가 다른 정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을 수평축으로 할 때 정책적 차이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4A에서 보듯 개인책임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개인에 비해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지원을 선호하는 개인이라도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강할수록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은 상승하고 가장 적대적이면 67.6%이다. 정부역할과 관련 진보적 공화당원이라도 민주당 당원들에 대해 적대적이면 트럼프를 지지한다. 한편 4B는 정부정책의 선호가 바이든 지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개인책임을 찬성하는 사람도 공화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강할수록 바이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적대감이 가장 강하면 62.7%이다. 보수적 민주당원은 정책에서는 보수적이라도 공화당 지지층에 적대적이면 바이든을 지지한다.

그림 4. 정책선호, 부정적 당파성과 후보지지



종속변수: 후보 지지, 설명변수: 나이, 성, 소득, 학력, 인종, 이념, 적대감, 정당일체감. 자료: UCLA+Democracy Fund

둘째, 정책 다음으로 영향이 강한 요인은 정당일체감이다. 트럼프 지지에서 민주당 일체감 변수의 표준계수 값은 −1.89, 바이든 지지에서 민주당(공화당) 일체감의 표준계수 값은 2.04(−2.04)이다. 둘째 열 즉 트럼프 선택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은 각각 16.7%와 46.0%이고 차이는 29.3% 포인트이다. 셋째 열에서 민주당 정체성의 개인과 공화당 정체성의 개인이 바이든을 지지할 가능성은 각각 48.7%, 25.7%이며 그 차는 23% 포인트이다.

반대정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양 후보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반대당 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은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트럼프 지지에서 더 크다. 정책선호에서 개인책임을 선호하는 응답자라도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표준편차 두 단위 상승하면 바이든 지지는 약 65% 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다(그림 4A). 바이든 지지를 보면 정부책임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공화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면 바이든 지지가능성은

14.6%에서 62.7%로 약 48% 포인트 증가한다(그림 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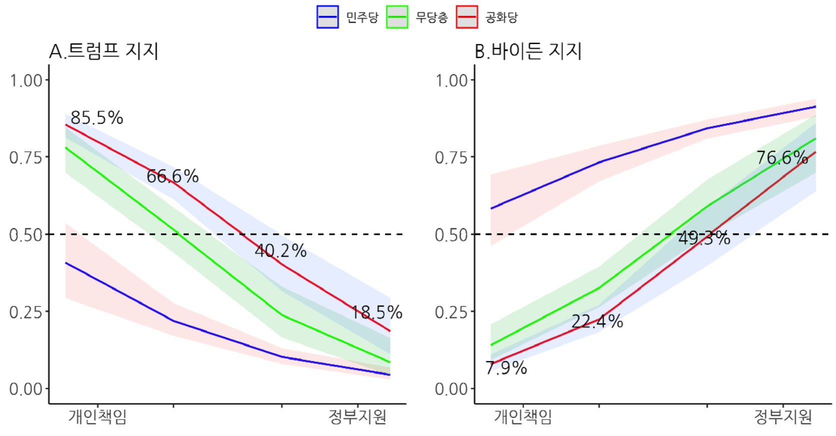
그 다음은 부정적 당파성의 효과이다. |표 1|의 트럼프 열에 있는 “민주당적대감” 변수는 민주당지지자에 대한 적개심이 트럼프 후보지지에 대한 영향을 뜻하며 표준계수는 1.11이다. 표준계수를 트럼프 지지확률로 환산하면 26.5% 포인트이다. 이는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표준편차 두 단위 이동할 때 발생하는 지지변동이다. 한편 |표 1| 바이든 열의 “공화당적대감” 변수는 공화당지지자에 대한 부정적 편향이 바이든 지지에 주는 의미를 뜻하며 표준계수는 0.58이다 이를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확률로 환산하면 13.7%이다. 13.7% 차이는 공화당지지자에 대한 적개심이 표준편차 두 단위 이동할 때 발생한다. 부정적 당파성 측면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영향(26.5%)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영향(13.7%)의 두 배에 가깝다. 그러나 정책적 차이가 각 후보 지지에 미치는 영향(70.4%, 53.7%)에 비하면 부정적 당파성의 효과는 훨씬 낮다.

주관적 이념이 각각의 후보에 갖는 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이념성향이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각각 1.31과 -1.31으로 정확히 대립된다. 이를 후보지지 확률로 바뀌면 31.3% 포인트 차이이다. 따라서 양 후보지지에 미치는 이념적 효과는 동일하다.[8] 그 외 인구학적 요인의 차이를 보면 나이 많은 응답자가 바이든을 선택했다. 나이는 트럼프 지지와 관계가 없다. 나이의 표준편차 두 단위 이동하면 바이든 지지는 약 14.7% 포인트 상승한다. 최종학력 변수의 계수값은 각각 -0.41과 0.61이며 양 후보에게 정반대의 관계를 갖는다.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바이든 지지는 상승하는 반면 트럼프 지지는 저

8) 모든 변수의 평균값에 고정한 선형예측값(linear predictor values)은 -0.140, 이를 이념변수의 계수(-1.324)에 적용하면 이념변수의 기울기는 -1.32*exp(-0.140)/(1+exp(-0.140)^2 = -0.3139. Gellman and Hill(2008, 89).

학력자의 지지를 받는다. 바이든 지지를 예로 할 때 고졸 미만부터 대학원 이상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 최종학력에서 고졸 이상과 대졸 이상 학력자의 바이든 지지는 약 14.6% 포인트 차이가 있다. 최종학력의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할 때 트럼프 지지는 약 9.7% 포인트 하락한다.

그림 5. 정책선호, 정당일체감 및 후보지지



종속변수: 후보 지지, 설명변수: 나이, 성, 소득, 학력, 인종, 이념, 적대감, 정당일체감. 자료: UCLA+Democracy Fund

정책과 당파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의 경우 민주당 정체성과 정책 간의 상호작용은 중요하지 않다(b=0.45, s.e=0.46). 한편 바이든 후보지지에서는 정책선호가 중요하다. 공화당 일체감과 정책 간 상호작용의 표준화계수는 1.32(s.e=0.45)이며 지지확률로 환산하면 31.3% 포인트이다.[9] [그림 5A]에서 보듯 민주당 지지자가 정책선호가 어떻든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은 50% 미만이다. 나아가 공화당 지

9) <표 1>의 바이든지지 방정식의 선형예측값은 -0.140이고 이를 공화당정체성: 정책 상호작용의 계수값에 적용하면 1.32 x exp(-0.140)/(1+exp(-0.140)^2 =0.321.

지자라도 정부지원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 트럼프 지지가능성은 40.2%로 하락한다(그림 5A). |그림 5B|에서 보듯 민주당 지지층은 개인책임을 지지하더라도 바이든을 지지한다. 한편 공화당 지지자가 개인책임을 선호할 경우 바이든 지지는 7.9%, 정부책임에 찬성한다면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 가능성은 76.6%로 약 69% 포인트 높다(그림 5B). 이처럼 정책선호는 정당일체감과 상호작용하며 바이든 후보지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요약하면 두 가설이 제시하는 주요 변수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정책선호의 예측이다. 개인의 정책선호가 표준편차 두 단위 이동할 때 즉 개인책임에서 정부역할 쪽으로 바뀔 경우 바이든 지지는 약 70.4% 포인트 상승하며 트럼프 지지는 53.5% 포인트 감소한다. 차이는 16.9% 포인트이다. 둘째, 정당일체감의 영향은 정책선호보다 작지만 여전하다.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가 바이든을 지지할 가능성은 48.7% 포인트 상승한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공화당 지지자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46.0% 포인트 높다. 그 차이는 2.7% 포인트이며 어느 쪽이든 당파성이 중요하다. 셋째, 정서적 양극화 가설이 제시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에 대한 효과는 각각 26.5% 포인트와 13.7% 포인트이다.

Ⅳ. 결론과 논의

정서적 양극화는 반대정당에 대한 편향적 태도로서 부정적 당파성으로 표출된다. 미국정치의 정서적 양극화 논의는 정책을 우선시하는 주장 대 정당이 우선이라는 주장으로 전개된다. 전자는 감정적 대립의 근원이 도구적 논리로 보는 반면 후자는 집단 간의 상징적 대립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 논쟁을 검증하기 위해 2011년 조사된 개인의 사회인구적 특성, 부정적 당파성, 정당일체감, 그리고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선호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선택에 미치는 역할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정책선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정당일체감은 그 다음이고 부정적 당파성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020년 대선에서 드러난 미국의 정서적 양극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당파적 적대감의 영향이 보여주듯 정서적 양극화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보적 공화당원과 보수적 민주당원은 각각 반대정당의 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에 따라 후보를 선택했다. 진보적 공화당원의 트럼프 지지 가능성은 민주당의 핵심지지층에 적대적이지 않을 때는 50% 미만이나 아주 적대적이면 67.6%이다. 보수적 민주당원이 바이든을 지지할 가능성은 공화당 핵심지지층에 대한 반감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적대감이 평균 이하일 경우 바이든 지지는 과반 미달이나 적대감이 강하면 50% 이상으로 상승한다.

둘째, 미국 유권자는 정당일체감과 별도로 정책선호를 후보선택에 반영했다. 개인책임에 반대하고 정부역할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의 트럼프 지지확률은 과반 미달이다. 한편 공화당원이라도 개인 또는 정부역할에 대한 선호에 따라 바이든 지지는 7.9%에서 77%로 크게 다르다. 정당일체감은 후보선택의 중요한 변수이지만 정책선호의 규제를 받는다. 2016년 트럼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부정적 당파성이 정서적 양극화에 기여했을 수 있으나 2020년의 경우 정책이 정당보다 중요한 선택기준이었음을 암시한다.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시하여 트럼프 4년 집권에 대한 정책적 평가가 미국 투표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양극화를 분석했으나 2022년 한국대선에서 드러난 심각한 양극화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첫 달 50%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양극화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팬덤정치’의 기반이 정책적 차이인지 아니면 반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인지에 대해 경험적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논의를 참고할 때 한국에서의 양극화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정당의 핵심지지층에 대해 보다 정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세대, 이념 및 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정당정체성으로 변환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명세. (2020).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압승할 수 있었나?. *연구방법논총*, 7(2): 29-62.

길정아·하상응. (2019).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호감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15(1): 46-78.

장승진. (2021). 당파적 양극화 속 새로운 정치적 대상에 대한 이념적 인식. *한국정치학회보*, 55(4): 71-90.

장승진·서정규. (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치학회보*, 18(3): 5-29.

장승진·장한일. (2020). 당파적 양극화의 비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54(5): 153-175.

정동진. (2016). 2016년 국회의원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0(5): 131-161.

정동진. (2018).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당파적 배열과 부정적 당파성을 중심으로. *OUGHTOPIA*, 33(1): 143-180.

Abramowitz, A. I. and Saunders, K. (2008). Is Polarization a Myth?. *The Journal of Politics,* 70(2): 542-555.

Abramowitz, A. I. and Webster, S. W. (2016). The Rise of Negative Partisanship and the Nationalization of US Elections in the 21st Century. *Electoral Studies*, 41: 12-22.

Abramowitz, A. I. (2018). *The Great Alignment: Race, Party Transformation, and The Rise of Donald Trump*. Yale University Press.

Abramowitz, A. I. and Webster, S. W. (2018). Negative Partisanship: Why Americans Dislike Parties But Behave Like Rabid Partisans. *Political Psychology*, 39: 119-135.

Achen, C. H. and Bartels, L. M. (2016). Democracy For Realists:

Holding Up a Mirror to the Electorate. *Juncture*, 22(4): 269-275.

Achen, C. H. and Bartels, L. M. (2018). Government For The People: A Reply to the Symposium. *Critical Review*, 30(1-2): 139-162.

Ahler, D. J., and Sood, G. (2018). The Parties in Our Heads: Misperceptions About Party Composition and Their Consequences. *The Journal of Politics*, 80(3): 964-981.

Amira, K., Wright, J. C., and Goya-Tocchetto, D. (2021). In-group Love Versus Out-group Hate: Which Is More Important to Partisans and When?. *Political Behavior*, 43(2): 473-494.

Bafumi, J., and Shapiro, R. Y. (2009). A New Partisan Voter. *The Journal of Politics*, 71(1): 1-24.

Bankert, A. (2020). *Partisan Identity and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Politics.

Barber, M., and Pope, J. C. (2019). Does Party Trump Ideology? Disentangling Party and Ideology in Ame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3(1): 38-54.

Bartels, L. M. (2002). Beyond the Running Tally: Partisan Bias in Political 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24(2): 117-150.

Bond, J. R., and Fleisher, R. (2001). The Polls: Partisanship and Presidential Performance Evaluation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1(3): 529-540.

Bougher, L. D. (2017). The Correlates of Discord: Identity, Issue Alignment, and Political Hostility in Polarized America. *Political Behavior*, 39(3): 731-762.

Campbell, A., Converse, P. E., Miller, W. E., and Stokes, D. E. (1960).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hen, G. L. (2003). Party Over Policy: The Dominating Impact of

Group Influence on Politic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08-822.

Converse, P. E. (2006).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1964). *Critical Review,* 18(1-3): 1-74.

Dhal, R. (1982). *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Autonomy Vs. Control*. Yale University Press.

Druckman, J. N., Klar, S., Krupnikov, Y., Levendusky, M., and Ryan, J. B. (2021a). Affective Polarization, Local Contexts and Public Opinion in America. *Nature Human Behaviour*, 5(1): 28-38.

Druckman, J. N., Klar, S., Krupnikov, Y., Levendusky, M., and Ryan, J. (2021b). How Affective Polarization Shapes Americans' Political Beliefs: A Study of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8(3): 223-234.

Enders, A. M., and Scott, J. S. (2019). The Increasing Racialization of American Electoral Politics, 1988-2016. *American Politics Research,* 47(2): 275-303.

Fiorina, M.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Yale University Press.

Fiorina, M. P., Abrams, S. J., and Pope, J. C. (2005).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NY: Pearson Longman Publishing.

Fiorina, M. P., Abrams, S. A., and Pope, J. C. (2008).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Misconceptions and Misreadings. *The Journal of Politics,* 70(2): 556-560.

Fiorina, M. P. (2016). The Political Parties Have Sorted. *A Hoover Institution Essay on Contemporary American Politics*, 1-20.

Fiorina, M. P. (2017). *Unstable Majorities: Polarization, Party Sorting, and Political Stalemate*. Hoover press.

Frizell, S. (2015). *One in Five Americans Still Think Obama is Foreign-Born, According to Poll*. Time. Retrieved 11 May 2022, (https://time.com/4033161/obama-foreign-born/).

Gellman, A. and Hill, J. (2008). *Data Analysis Using Regression and Multilevel/Hierachical Mod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aham, M. H. and Svolik, M. W. (2020). Democracy in America? Partisanship, Polarization, and the Robustness of Support for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4(2): 392-409.

Green, D. P., Palmquist, B., and Schickler E. (2002). *Partisan Hearts and Minds: Political Parties and the Social Identities of Voters*. Yale University Press.

Hetherington, M. J. (2001). Resurgent Mass Partisanship: The Role of Elite Polar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3): 619-631.

Hetherington, M. J. and Rudolph, T. J. (2015). *Why Washington Won't Wor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therington, M. J., Long, M. T., and Rudolph, T. J. (2016). Revisiting the Myth: New Evidence of a Polarized Electorate. *Public Opinion Quarterly*, 80(S1): 321-350.

Huddy, L., Mason, L., and Aarøe, L. (2015). Expressive Partisanship: Campaign Involvement, Political Emotion, and Partisan Ident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9(1): 1-17.

Iyengar, S., Sood, G., and Lelkes, Y. (2012). Affect, Not Ideolog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6(3): 405-431.

Iyengar, S. and Westwood, S. J. (2015). Fear and Loathing Across Party Lines: New Evidence on Group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3): 690-707.

Iyengar, S., Konitzer, T., and Tedin, K. (2018). The Home as a Political Fortress: Family Agreement in an Era of Polariz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80(4): 1326-1338.

Iyengar, S. and Krupenkin, M. (2018). The Strengthening of Partisan Affect. *Political Psychology*, 39: 201-218.

Iyengar, S., Lelkes, Y., Levendusky, M., Malhotra, N., and Westwood, S. J. (2019).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129-146.

Jacobson, G. C. (2007). Referendum: The 2006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2(1): 1-24.

Johnston, C. D. (2018). Authoritarianism, Affective Polarization, and Economic Ideology. *Political Psychology*, 39: 219-238.

Jeong, Gyung-Ho. (2020). Public Opinion and Senate Treaty Ratification. *Analyses & Alternatives*, 4(2): 5-38.

Kalmoe, N. P. and Mason, L. (2022). *Radical American Partisanship: Mapping Violent Hostility, Its Causes, and the Consequences for Democra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lar, S., Krupnikov, Y., and Ryan, J. B. (2018). Affective Polarization or Partisan Disdain? Untangling a Dislike for the Opposing Party from a Dislike of Partisanship. *Public Opinion Quarterly*, 82(2): 379-390.

Klar, S., Leeper, T., and Robison, J. (2020). Studying Identities with Experiments: Weighing the Risk of Posttreatment Bias Against Priming Effects.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7(1): 56-60.

Krupnikov, Y. and Ryan, J. B. (2022). *The Other Divide: Polarization and Disengagement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u, R. R., Andersen, D. J., Ditonto, T. M., Kleinberg, M. S., and Redlawsk, D. P. (2017). Effect of Media Environment Diversity and Advertising Tone on Information Search, Selective Exposure, and Affective Polarization. *Political Behavior*, 39(1): 231-255.

Lelkes, Y. (2016). Mass polarization: Manifestations and Measurements. *Public Opinion Quarterly*, 80(S1): 392-410.

Lelkes, Y., Sood, G., and Iyengar, S. (2017). The Hostile Audience: The Effect of Access to Broadband Internet on Partisan Affec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1): 5-20.

Lelkes, Y., and Westwood, S. J. (2017). The Limits of Partisan Prejudice. *The Journal of Politics*, 79(2): 485-501.

Lelkes, Y. (2018). Affective Polarization and Ideological Sorting: A Reciprocal, Albeit Weak, Relationship. *The Forum*, 16(1): 67-79.

Lelkes, Y. (2021). Policy Over Party: Comparing the Effects of Candidate Ideology and Party on Affective Polarization.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9(1): 189-196.

Levendusky, M. (2009). *The Partisan Sor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ijphart, A. (1968). Typologies of Democratic System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1): 3-44.

Lipset, S. M. (1960). Party Systems and the Representation of Social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Archives Européennes de Sociologies*, 1(1): 50-85.

Macy, M., Deri, S., Ruch, A., and Tong, N. (2019). Opinion Cascades and the Unpredictability of Partisan Polarization. *Science Advances*, 5(8). (https://doi.org/10.1126/sciadv.aax0754).

Margolis, M. F. (2018). *From Politics to the Pews: How Partisanship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Shape Religious Ident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son, L. (2015). I Disrespectfully Agre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1): 128-145.

Mason, L. (2016). A Cross-Cutting Calm: How Social Sorting Drives Affective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80(S1): 351-377.

Mason, L. (2018). *Uncivil Agreement: How Politics Became Our Ident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son, L., and Wronski, J. (2018). One Tribe to Bind Them All: How Our Social Group Attachments Strengthen Partisanship. *Political Psychology*, 39: 257-277.

Mason, L., Wronski, J., and Kane, J. V. (2021). Activating animus: The uniquely social roots of Trump suppor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5(4): 1508-1516.

McCarty, N., Poole, K. T., and Rosenthal, H. (2006). *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MIT Press.

McCarty, N. (2019). *Polarization: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versity Press.

McConnell, C., Margalit, Y., Malhotra, N., and Levendusky, M. (2018).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tisanship in a Polarized Er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2(1): 5-18.

Pew Research Center. (2019). *Partisan Antipathy: More Intense*. More Personal Available from (http://pewrsr.ch/3gGRfGp).

Pierce, D. R. and Lau, R. R. (2019). Polarization and Correct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Electoral Studies*, 60.

Rodden, J. A. (2019). *Why Cities Lose: The Deep Roots of the Urban-Rural Political Divide*. Basic Books.

Rogowski, J. C., and Sutherland, J. L. (2016). How Ideology Fuels Affective Polarization. *Political Behavior*, 38(2): 485-508.

Schickler, E. (2018). Democracy for Realists, Groups, and Ordinary Voters. *Critical Review*, 30(1-2): 119-129.

Shafranek, R. M. (2021). Political Considerations in Nonpolitical Decisions: A Conjoint Analysis of Roommate Choice. *Political Behavior*, 43(1): 271-300.

Sides, J., Tesler, M., and Vavreck, L. (2018). Hunting Where the Ducks Are: Activating Support for Donald Trump in the 2016 Republican Primary.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8(2): 135-156.

Stimson, J. A. (2004). *Tides of Consent: How Opinion Movements Shape American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jfel, H. (1979). Individuals and Groups in Social Psycholog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2): 183-190.

Webster, S. W. and Abramowitz, A. I. (2017).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S Electorate. *American Politics Research*, 45(4): 621-647.

West, E. A. and Iyengar, S. (2020). Partisanship as a Social Identity: Implications for Polarization. *Political Behavior*, 1-32.

Westwood, S. J., Iyengar, S., Walgrave, S., Leonisio, R., Miller, L., and Strijbis, O. (2018). The Tie That Divides: Cross-national Evidence of the Primacy of Partyis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7(2): 333-354.

Westwood, S. J., Peterson, E., and Lelkes, Y. (2019). Are There Still Limits on Partisan Prejudice?. *Public Opinion Quarterly*, 83(3): 584-597.

Westwood, S. J., and Peterson, E. (2020). The Inseparability of Race and Partisanship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Behavior*, 1-23.

Whitt, S., Yanus, A. B., McDonald, B., Graeber, J., Setzler, M., Ballingrud, G., and Kifer, M. (2021). Tribalism in America: Behavioral Experiments on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Trump Era.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8(3): 247-259.

Manuscript: Jun 09, 2022; Review completed: Jun 26, 2022; Accepted: Jul 11, 2022